

보도시점

2023. 11. 3. (금) 17:00

배포

2023. 11. 3. (금) 17:00

농어촌공사, 『투발루 어촌그린 ODA 사업』 출범식 갖고 본격 추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3일(현지시간) 남태평양 도서국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에서 「투발루 어촌그린 ODA 사업」 본격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다.

‘투발루* 어촌그린 ODA 사업’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4년간(2023~2026년) 67억 원을 투입하여 어선접안시설과 어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필수 어업 시설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 투발루: 남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섬나라로 인구 1만 명의 작은 섬나라지만, 인근 수역에 대규모 참치어장을 보유한 우리나라 원양업계의 중요 조업 구역이다.

출범식에는 박영규 주피지한국대사를 비롯해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공사 이병호사장, Hon Ampelosa Tehulu 투발루 총리대행 및 다수의 장·차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투발루 현지에서 진행된 이번 출범 행사에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보고회 등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사물놀이, 한-투발루 문화공연을 진행하여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였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출범식은 투발루 어촌그린 ODA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담았다”며 “공사가 보유한 110년간의 농어촌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발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어촌수산처	책임자	부 장	강신길 (061-338-5491)
	어촌총괄부	담당자	차 장	한상수 (061-338-5495)